

우리나라 物價構造의 分析 (其一)

—獨占價格形成의 바탕과 特徵—

羅 雄 培

目 次

1. 序 論
2. 獨占企業의 生成過程과 그 特徵
3. 獨占價格의 具體的樣相
4. 獨占價格의 功過
5. 結 論

1. 序 論

歷史上 人類가 財貨나 用役의 價値를 表現하는 手段으로서 貨幣를 使用한 곳에 있어서는 어느 處를 莫論하고 어떠한 形態의 「인플레이션」이 反復되어 왔다. 그리고 一般的으로 말해서 過去의 數 많은 「인플레이션」이 終局에 가서는 酷甚한 人間의 苦難과 經濟的 損失을 가져왔다. 不幸히도 우리나라는 1945年 解放以來 近 20年間을 慢性的인 「인플레이션」으로 辛을하여 왔다. 이와 같은 趨勢下에서 언제나 物價의 安定이 希求되어 왔으며 때로는 모든 經濟政策의 焦點이 이 目標에 歸一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레 對策의 가장 主된 흐름은 언제나 素朴한 貨幣數量說의 根據위에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緊縮財政 및 金融政策에 의한 通貨量의 收縮 및 政策的인 年間 通貨量限度의 設定 卽 「財政金融安定計劃」이 物價安定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重要한 武器였으며 이를 補完하기 위하여 政府保有外換의 賣却 援助의 增額要請이 때때로 提起되었다. 그리고 最近에는 보다 強力한 手段으로서 米穀을 비롯한 生必需品 및 基礎財貨에 대하여 直接的인 價格統制가 取하여졌으나 適切한 補完策이 따르지 못하여 오히려 價格體系 및 流通體系에 混亂을 招來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와 같이 繼續的인 物價의 上昇으로 混亂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物價가 우리나라의 產業構造 내지는 經濟構造를 反映하는 하나의 指標에 不

過하다는 極히 當然한 事實이 때때로 看過되어 온 것 같다. 이러한 事實은 物價安定 곧 緊縮政策으로 連結지우는 結果가 되었으며 貨幣的 側面的 지나친 強調은 物價上昇을 誘發하고 있는 歪曲된 產業構造 내지 經濟構造에 대한 關心을 희박하게 하였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正常的인 市場機能을 通하여 價格이 形成되고 있는 財貨는 極히 드물며 價格의 媒介變數의 機能이 아주 不完全하다는 것을 勘察한다면 單純한 緊縮政策을 通한 物價安定策以外에도 다른 補完策이 쓰여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補完策은 物價構造의 變動推移와 Group 別物價形成의 要因을 보다 細密히 觀察하는 데서 出發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는다. 이것은 結局 物價形成의 基盤이 되는 產業構造의 特徵과 이를 바탕으로 한 物價形成의 特徵을 究明하여야 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物價體系는 產業의 近代化過程에 있는 大개의 後進國들이 그러하듯이 前資本主義的 要素와 資本主義的 要素의 混在, 市場의 不完全性 및 이에 따른 政府의 直接 間接의 介入等 複雜한 要因으로 形成되는 數 많은 價格群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 物價體系를 몇 개의 類型으로 分類, 論議한다는 것은 不合理한 結果를 가져올 危險性을 內包하고 있다. 그러나 分析手法上 이와 같은 危險에도, 不拘하고 類似한 價格群들을 묶어 몇 개의 類型으로 分類, 分析한다는 것은 充分한 意義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物價의 形成上의 特徵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物價體系는 다음과 같은 大개의 類型으로 크게 分類할 수 있다. 첫째의 類型은 管理價格群이다. 管理價格은 市場競爭으로 價格이 形成되는 市場價格에 對應하는 것으로 企業主體가 價格을 設定하는 모든 價格이며 따라서 獨占價格과는 다

르다는 넓은 定義로 쓰여지고 있기도 하다.(註1) 그러나 여기서는 이와는 달리 좁은 뜻으로 定義한다. 「管理價格이란 미리 販賣價格을 決定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市場에 充分한 影響을 끼칠 수 있을 만큼 操業을 擴張 또는 短縮함으로써 그 決定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企業主體에 의해서 決定된 價格」(註2) 이라는 定義에 따른다. 이와 같은 定義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價格群內에서 세멘트 板유리 肥料 油類 石炭類 鐵道料金等이 이에 屬한다. 다음은 칼텔 價格群이다. 여기에서 칼텔 價格群이라고 하는 것은 比較的 少數業者間에 默示的 또는 公示的으로 販賣價格을 協定하며 이 協定을 効率的으로 지킬 수 있는 價格群을 가리킨다. 綿絲, 綿布, 梳毛絲, 毛織物 雪糖 小麥粉 金屬製品等이 이에 包含된다. 셋째의 類型은 多數의 中小企業들에 의하여 供給되는 工業製品들의 價格群이다. 이들 價格들도 同業者間에 이루어지는 組合 또는 聯合會를 통하여 價格에 대한 相互協議 나아가서는 協定價格의 決定에 까지 이르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은 協定價格을 效果的으로 維持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대개의 경우 price maker 로서 보다 price taker 로서 行動하게 된다. 이것을 自由競爭價格群으로 보았으며 洗濯비누, 성냥, 各種메리야스, 고무 신類 等이 이에 包含된다. 끝으로 農産物價格群이다. 이 農産物價格群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典型的인 自由競爭價格이라고 생각된다. 供給者는 多數이며 이들 間에는 그들 生産品의 價格決定에 있어 어떠한 同一方向의 行爲를 取할 수 있는 아무런 機構나 힘을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分類는 다소 恣意的이기도 하며 또 具體的으로 어떠한 財貨들을 어느 價格群에 包含시킬 것인가에 대하여는 까다로운 問題가 없지도 않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들은 그들 價格群의 特徵을 分析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障害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註 1) Jules Beckman, "Administered Price", Steel and Inflation, published by U.S. Steel Co., 1953.

(註 2) F. G. Nurse and H. B. Drury, Industrial Price Policies and Economic Progress,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1938, p. 8252

2. 獨占企業의 生成過程과 그 特徵

獨占價格은 長期的으로 平均利潤을 넘는 超過利潤을 商品價格속에 包含하고 있는 價格이라는 一般的인 解釋을 따를 때 이와 같은 獨占價格을 形成하기 위한 基礎條件으로서는 同一한 產業部門에 少數의 大企業이 存立하여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生産販賣의 量과 市場價格과의 關係가 測定할 수 있는 것이 되며 獨占的 市場支配의 可能性을 自覺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基幹部門을 비롯한 近代化된 產業部門은 大部分 少數의 大企業이 獨占的으로 存在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先進資本主義國의 高度技術을 導入하는 群小國의 경우 企業의 適正規模에 比하여 市場이 狹小하기 때문에 大規模經濟는 必然的으로 獨占 내지 寡占企業을 낳게 된다는 事實에 그 論據를 發見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市場規模로는 近代的 施設을 갖춘 많은 企業들이 競爭的으로 市場에 臨하기에는 지나치게 狹小하다. 다음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 또는 數個의 企業이 國內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는 重要產業部門이 許多하다. 따라서 이들 間에 市場支配를 目的으로 하는 價格協定에 到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業種別	企業體數	生産實績 1962年	生産能力	推定需要量
綿 絲	16	千封度 115,749	千封度 130,000	千封度 115,357
梳 毛 絲	8	千封度 4,679	千封度 8,000	千封度 6,000
製 糖	7	53,633M/T	246,000M/T	80,000M/T
製 粉	33	347,679M/T	783,217M/T	—
세 멘 트	2 註① (5)	789,734M/T	720,000M/T (1,670,000)	M/T 1,000,000
板 유 리	1	259,229C/S	480,000C/S	400,000C/S
尿素肥料	2	81,285M/T	170,000M/T	300,000M/T
新聞用紙	3	37,646M/T	41,000M/T	50,000M/T
模 造 紙	5	16,924M/T	17,600M/T	17,000M/T
타 이 야	6 註②	179,174本	300,000本	262,210本

註 ① 括弧內數字는 1964년에 竣工된 工場도 包含한것임

註 ② 再生타이야는 不包含

資料：韓國銀行 調査統計年報, 韓國의 産業

이와 같은 事實에서 볼 때 이들 近代企業의 生成發展過程 및 그 存在形態를 把握한다는 것은 이들 製品價格群의 特性을 理解하는데 相當히 重要하다. 우리나라 産業은 日帝에서 물려받은 多

少의 施設이 있었다고 하나 6.25 動亂이 全國을 휩쓴 뒤에 거의 새로이 生成發展하였다. 莫大한 戰亂의 被害에다 加重되는 軍事費負擔은 그대로 惡性인플레이의 現象을 惹起시켰으며 民間資本의 正常的인 蓄積과 投資活動은 沮害되었고 生産과 流通部門間的 均衡은 基本的으로 破壞되었다.

이와 같은 與件下에서 政府는 財貨의 生産流通의 圓滑化에 政策的인 配慮를 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가지가지 特權과 特惠措置로 나타났다. 이러한 惡性인플레이 狀態와 政府의 特權, 特惠에 의한 資本蓄積, 生産增強政策은 商業資本을 中心으로 하는 少數財閥들에게 急速한 自己資本蓄積을 可能케 하였으며, 事實 그 結果로 綿絲布, 毛織, 食品工業等 一部 消費財生産은 1953年 休戰當時에 이미 動亂前水準을 凌駕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大企業들은 바로 이 動亂인플레이時期에 비로소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 休戰協定이 締結된 뒤에 美國이 우리나라의 經濟再建을 돕는다는 뜻에서 老大한 經濟援助를 開始하게 되었고 이 援助를 契機로 하여 우리나라 經濟는 表面上 活潑한 復舊再建活動을 하기에 이르렀다. 援助는 主로 消費財工業의 再建에 集中되었으며 外援에 의한 機械施設의 導入, 導入原料의 實需要者割當 및 그밖에 非現實的인 公定換率, 財政 金融上的 資金支援을 뒷받침으로 하여 눈부신 發展相을 보였다. 綿紡織, 製粉, 製糖 등의 生産을 中心으로 하는 輕工業部門은 이미 이 段階에서 앞으로 數年間의 國內需要를 充足시키고도 남을 施設能力을 갖추게 되었고 毛紡織, 製紙, 다이아, 세멘트, 板유리, 肥料, 火藥等 一部 生産財產業部門에도 近代施設을 갖춘 企業들이 設立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援助, 外換, 財政, 金融上的 特惠와 繼續되는 物價上昇等으로 少數大企業들은 그 資本力을 充實化하였다. 그러나 1957年을 轉換點으로 하여 取하여지기 시작한 財政金融上的 緊縮政策에 부딪치자 이들 消費財產業部門의 無分別한 擴大傾向은 一旦 停止段階에 들어갔다. 이때 이들 產業部門에서는 過剩施設에서 오는 價格下落의 沮止와 獨占利潤의 繼續的인 確保를 위하여 갈뎃의 形成을 摸索하였으며 市場機能을 통한 商品價格의 形成을 沮害하여 經濟全體에 歪曲現象을 招來하였다. 이와 같은 再整備段階를 거치는 가운데

대 大企業들은 徐徐히 政府의 政策的 支援을 받을 수 있는 基礎生産財部門에 進出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生成發展하여온 우리나라의 大企業들은 그 生成바탕에서 必然的으로 隨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몇가지 뚜렷한 特徵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로 一部 基礎生産財產業部門을 除外한 大部分의 消費財產業들이 原料를 外援輸入에 依存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對美公定換率의 決定에 있어서 언제나 元貨가 高評價되어 왔기 때문에 이 原料의 外援依存自體가 莫大한 利益의 獲得을 意味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은 原料의 全的인 輸入依存은 이들 企業의 成長이 別로 國內의 所得 및 雇傭增加의 機會를 마련하여 주지 않았으며, 外援의 削減에 의한 原料導入의 減少나 對美換率의 平價切下는 이들 大企業의 生産活動 및 價格決定에 卽刻的인 影響을 끼쳐왔다. 따라서 本來 商業資本의 性質을 多分히 띠고 있는 獨占企業들은 大部分 輸出入活動에 깊이 關與하고 있으며, 長期的 展望 위에서의 企業의 運營보다도 去來上에서 發生하는 商業利潤의 움직임에 더욱 敏感하다.

둘째의 特徵은 우리나라의 獨占企業들은 生産財產業部門보다 消費財產業部門에 많이 存在함으로써 市場競爭圈에서 中小企業과 有機的인 生産補完關係에서 있기보다 오히려 市場에서의 競爭者로서 登場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 具體的인 例로서 紡織業, 製粉業, 고무工業 등을 들 수 있다. 또 競爭關係가 아닌 다른 部門에서도 유리, 세멘트, 製糖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原材料에서부터 完製品의 販賣에 이르기 까지 全的으로 自己完結的인 一貫生産體制가 形成되고 있으며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이 原料조차도 輸入에 보다 더 依存함으로써 中小企業과의 補完的 關係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先進國에서 대개 獨占企業들이 生産財產業部門 特히 重化學工業部門에 置重되어 있으며 또 本來 獨占이 主로 景氣變動에 대한 適應性의 有無 및 固定資本部分의 擴大에 의한 資本移動의 困難等を 理由로 消費財產業部門보다 生産財產業部門에 成立하는 傾向이 있다는 點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獨占企業이 消費財產業部門에 集中되어 있다는 것은 特異한 現象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工業의 發展段階가 消費財產業에서 生産財產業으로 段階的으로 發展, 移轉하며 우리나라의 工業이 아직도 生産財產業에 移行할 수 있을 만큼 充分히 發展하지 못하였다는 데 그 主된 原因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現象은 이들 獨占企業이 資本力과 組織力을 利用하여 아직도 組織化 近代化되지 못한 市場體制 속에서 後進的인 脆弱性과 不安定性을 免하지 못하고 있는 中小企業, 農業, 消費者等 前近代의 性格이 강한 部門의 弱點에 便乘하여 原價上昇의 要素를 이들에게 轉嫁시키고 獨占企業이 가져야 할 가장 重要한 利點으로서의 技術革新 마저도 結果 하지 못할 憂慮가 있다. 이러한 憂慮는 獨占企業들의 販賣網의 全國的 階層的 支配系列을 強化하는 경우 더욱 커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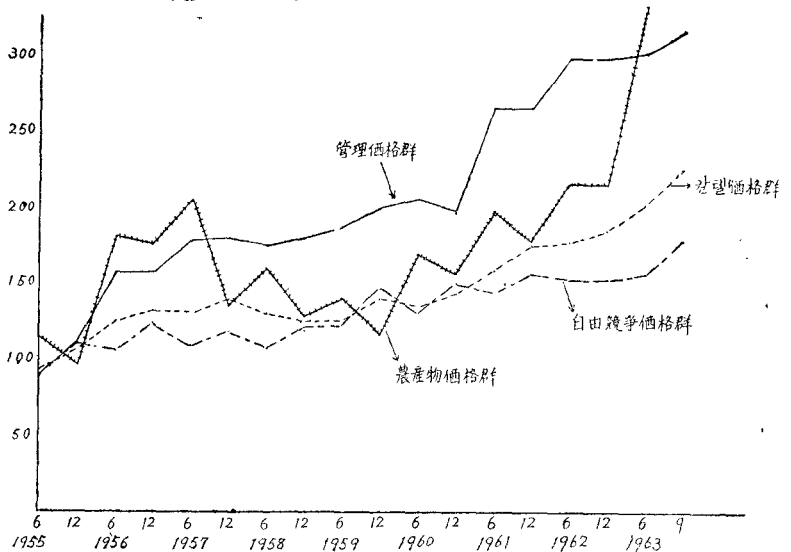
3. 獨占價格의 具體的 樣相

既述한 바와 같은 特徵을 갖춘 獨占企業들의 價格政策은 當然히 獨占利潤의 強力한 追求에 두어 졌다. 다음 表와 圖表는 1955年 以來 우리나라의 特徵的인 네개의 價格群의 推移를 나타낸 것이다. 각 價格群別指數의 算出에 있어서 모든 品目을 網羅하지 못하였다는 點에서 이 圖表가 完全한 것이 되지는 못하나 이들 몇개의 價格群의 特徵的인 變動樣相을 나타내는 데는 充分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圖表에서 보면 水泥, 板 유리 肥料等を 包含하는 管理價格群은 典型的인 下方硬直性과 上方敏感性을 나타내고 있다. 卽 이들 價格群은 1957年에서 1961年에 걸쳐 취하여진 일련의 財政金融安定計劃을 主軸으로 한 緊縮政策에도 不拘하고 1958年에 微落을 보였을 뿐 上昇趨勢를 그대로 持續하여 왔으며 또한 1961年初에 斷行된 換率切下의 効果도 거의 그대로 價格에 轉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價格群의 變動樣相은 별로

類別 都實物價指數 (1955=100)

年度別	管理價格群	칼릴價格群	自由競爭價格群	農產物價格群	總指數
1955. 6	90.0	93.3	89.9	114.9	99.7
12	112.0	106.7	111.7	97.4	103.9
1956. 6	158.3	124.2	105.7	181.0	140.1
12	158.8	131.5	124.9	177.2	143.2
1957. 6	178.0	130.8	109.5	205.6	159.6
12	181.0	140.8	119.3	137.1	142.4
1958. 6	174.7	130.5	108.6	162.1	146.3
12	180.4	125.0	122.7	128.1	138.8
1959. 6	188.8	126.9	124.5	142.9	148.6
12	201.9	141.4	149.3	119.3	153.1
1960. 6	207.5	135.1	136.9	171.4	165.2
12	197.2	144.9	151.7	159.5	164.4
1961. 6	266.6	159.6	144.8	201.5	192.9
12	267.7	176.7	159.7	173.8	192.9
1962. 6	301.7	178.9	153.1	217.1	220.1
12	301.0	186.1	154.4	216.3	223.7
1963. 6	304.9	204.1	158.8	335.7	266.8
9	318.5	227.3	181.5	413.0	309.0

- 註 1) 韓銀都實物價指數에 依據하여 作成하였음
 2) 管理價格群은 板 유리, 水泥, 肥料, 油類, 石炭, 金屬製品의 加重平均値
 3) 칼릴價格群은 織絲, 織布, 小麥粉, 雪糖, 醫藥品 印刷用紙의 加重平均値
 4) 競爭價格群은 세탁비누, 橡膠, 고무신, 메리야스의 加重平均値



起伏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그 水準은 대체로 他物價群의 價格上昇에 先行하고 있으며, 原價의 上昇要因은 卽刻的으로 價格引上을 통하여 消費

者에게 轉嫁시키고 있다.

다음 칼텔價格群은 管理價格群에 比하면 그 變化率도 比較的 크며 그 水準도 相對的으로 低位에 있다. 그러나 이들 價格群도 自由競爭價格群에 比하면 그 價格은 보다 安定的이며 대체로 보다 高水準에 있다. 그러나 이들 價格群은 1957年 以後에 取하여진 緊縮政策의 影響을 相當히 받고 있으며 1961年의 換率切下에 의한 原資材 原價의 上昇效果도 그 一部分을 價格에 轉嫁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事實은 이들 칼텔價格群이 大部分 國內需要量에 비추어 過大한 施設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價格의 大幅的인 上昇을 企圖하기 위한 生産量의 制限을 위하여는 지나친 操業短縮을 꾀할 수 없었으며 이것이 별로 所望스러운 結果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데에 根據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比해서 多數의 中小企業者들에 의하여 生産되는 自由競爭 價格群은 工業製品의 價格들 중에서 가장 起伏이 甚하며 1955年에서 1962年에 이르는 約 8個年間に 걸쳐 54%의 上昇率을 보였으며 이것은 同期間中 都賣物價總指數가 約 2.7倍나 上昇하였다는 事實과 比較하여 본다면 이들 中小企業들이 얼마나 不利한 市場條件에 놓였었던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들 價格이 農產物價格群에 比하여 보다 安定的이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개의 製造業部門에는 默示的 또는 公示的인 價格協定現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理由가 있다. 따라서 이와 對照的으로 우리나라에서 自由競爭의 市場性을 가장 典型的으로 代表한다고 생각되는 農產物價格이 가장 甚한 起伏을 보이고 있으며 1957年의 安定政策의 打撃도 가장 强하게 받았음은 쉽게 理解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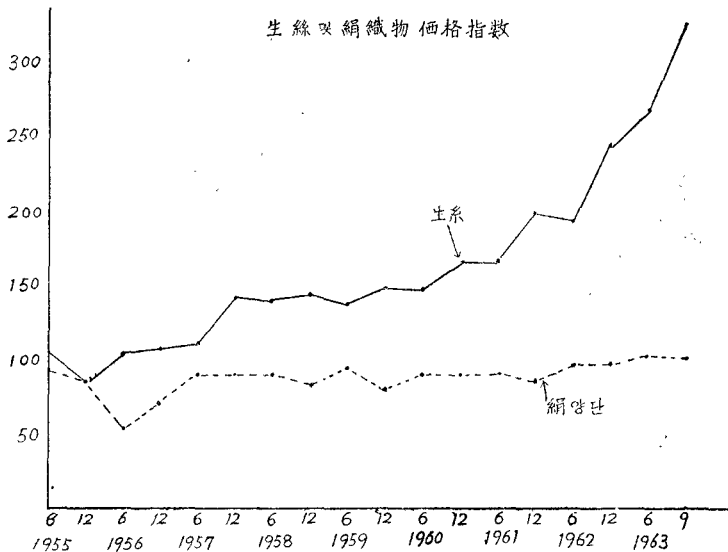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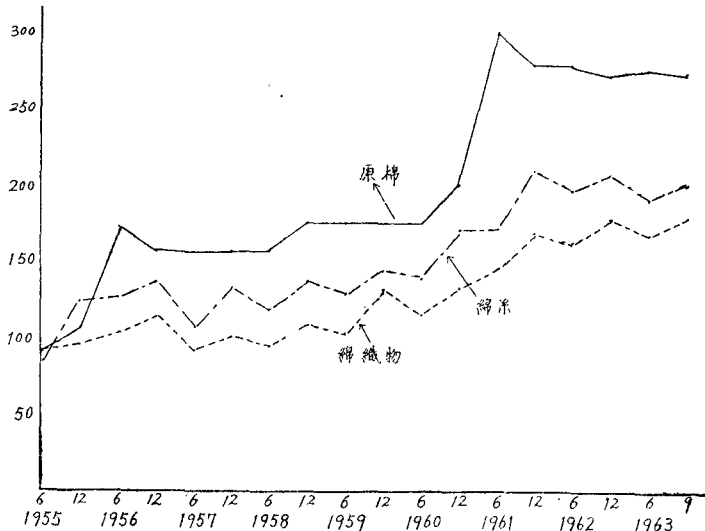
이와 같이 獨占企業들이 消費者 및 中小企業者들의 희생위에서 相當한 獨占利潤을 享有하였으리라는 事實은 우리나라의 代表的 産業部門이며 近代化된 部門과 前近代的 部門이 서로 混在하여 있는 纖維工業製品間의 價格變動推移를 考察함으로써 더욱 明確하여 진다. 이 纖維工業內에 形成되는 價格群은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原棉 半製原毛 人絹絲等 輸入商品의 價格이며 둘째는 綿絲, 梳毛絲, 生絲等 國內의 少數大

企業들에 의하여 生産되는 製品價格이며 마지막 하나는 이들 製品을 사들여서 수많은 中小企業이 一部大企業과의 競爭下에서 生産하고 있는 綿織物, 毛織物, 人絹織物, 絹織物等의 價格이다. 다음 圖表는 纖維製品의 價格指數를 나타낸 것이다. 原棉價格은 實需要者購買기 때문에 換率變動의 影響을 直接的으로 받고 있으며 그 時勢의 變動은 單純히 海外時勢의 變動을 나타내는 것에 不過하다. 이에 比해서 綿絲의 價格은 國內施設의 整備가 一段落된 뒤에 연이어 취하여진 1957年의 緊縮政策의 實施로 비록 칼텔價格을 形成시켰으나 價格은 相當한 低下傾向을 밝지 않을 수 없었다. 綿織物價格이 綿絲價格과 거의 同一한 變動을 보이고 있음은 綿絲와 綿織物의 生産企業이 同一하다는 點에서 納得할 수 있으며 따라서 綿紡績 및 紡織業의 경우 비록 充分하지는 않더라도 칼텔價格은 效果的으로 維持되었다. 그러나 가장 多數의 中小企業이 存在하고 있는 絹織物部門에서는 이와는 다른 現象을 볼 수 있다. 卽 圖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比較的 少數의 大企業들에 의하여 칼텔 價格이 形成되어 있는 生絲價格이 安定的이면서 꾸준한 上昇을 維持하여 왔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原料로 한 絹양단의 價格

纖維製品都賣價格指數 (1955=100)

年度別	原 綿	綿 絲	綿 布	生 絲	絹양단
1955.6	91.0	85.8	92.2	107.7	93.1
12	112.2	124.0	97.0	86.9	85.3
1956.6	123.0	125.8	104.6	104.2	53.2
12	131.9	135.1	117.7	107.7	71.1
1957.6	122.6	106.5	91.5	111.8	91.8
12	150.8	132.5	101.2	142.9	91.2
1958.6	156.4	117.4	94.1	140.1	91.4
12	174.2	136.2	109.4	142.5	83.2
1959.6	174.2	128.2	102.7	136.1	94.9
12	174.2	143.5	132.2	148.2	79.1
1960.6	174.2	138.9	116.8	147.1	88.9
12	199.2	170.2	130.5	166.8	89.1
1961.6	299.8	169.7	146.7	166.8	90.4
12	278.3	208.1	169.7	194.6	86.1
1962.6	279.5	195.8	163.9	192.3	97.6
12	270.2	204.8	177.3	243.2	97.6
1963.6	276.7	189.9	167.3	266.1	103.7
9	272.7	207.0	201.7	322.8	84.7

資料：韓國銀行調查部



은 아직도 1955 年의 低水準을 넘고 있지 않다는 事實은 生絲製造業者들의 効率的인 減價價格이 中小絹織物業者의 利潤을 侵蝕하여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梳毛絲와 梳毛服地의 價格, 人絹絲와 人絹織物의 價格사이에서도 같은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비단 纖維工業에서 뿐 아니라 生産財産業部門에서도 볼 수 있다. 獨占企業의 管理價格인 板유리 세멘트價格에 比하여 벽돌 價格은 1955 年以來 거의 上昇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注目할만한 事實이다. 더구나 獨占企業의 價格들이 1961 年以後는 政府의 統制價格을 나타내는 것이며 事實上 流通過程에서의 價格形成에

비추어 볼 때 直接的 統制가 없었더라면 이들 獨占企業이 價格을 相當히 引上 시켰을 것이라는 點을 생각한다면 事實은 더욱 明白하여 진다.

勿論 이와 같은 都賣價格의 相對的인 움직임으로 獨占價格의 全貌를 分析, 把握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적어도 獨占價格은 平均利潤을 넘는 利潤을 商品價格에 包含시키고 있음을 特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限 이들 獨占價格의 正確한 原價分析과 이를 土臺로 한 平均利潤 및 超過利潤의 算出 및 分析은 무엇보다 有益하며 所望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方法에 의한 獨占價格의 分析은 상당히 오랜 期間에 걸쳐 더구나 粉飾된 財務諸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은 極히 困難한 일이다. 따라서 주어진 統計 즉 都賣物價의 分析으로서 이를 分析한다는 것은 考慮할 수 있으며 이것은 大企業이 獨占하는 部門과 中小企業이 存在하는 部門과의 商品價格의 比較는 獨占價格 및 獨占利潤을 推測할 수 있는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4. 獨占價格의 功過

傳統的 經濟理論에 의한다면 「獨占價格은 언제나 받을 수 있는 最高價格이다. 이에 反해서 自然價格 또는 自由競争價格은 모든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나 長期的으로 보면 最低價格이다. 前者는 어느 경우에도 消費者를 榨取할 수 있는 最高價格 卽 購買者가 承諾하리라고 생각되는 最高의 價格인에 비추어 後者는 보통 販賣者가 참고 일을 繼續해 나갈 수 있는 最低의 價格이다」(註1) 이것은 다시 完全競争은 長期的으로

(註 1)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Cannan's ed., Vol. I, p. 60.

價格을 平均生産費와 限界生産費와의 一致點인 最適規模에 落着시킴으로써 資源의 最適配分을 가져올 것이며 競爭의 不完全性은 이와 같은 最適配分을 阻害한다는 意味에서 資源을 濫用하는 結果가 된다는 것이다. 勿論 企業과 家計의 極大行動의 綜合 및 調整은 結局 試行錯誤의 過程이며 이런 意味에서 資源의 浪費를 包含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적어도 資本主義經濟의 中心機構로서의 價格機構의 作用은 完全競爭下에서 最適能率을 發揮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이에 反해서 獨占은 價格機構의 完全한 作用을 阻害한다는 點에서 資源을 濫用하는 것이며 市場支配力을 가진으로써 消費者를 榨取하는 것이라고 理解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獨占의 存在를 肯定的으로 承認하고 그 위에서 어떠한 形式으로든 獨占의 經濟的 役割을 認定하고 새로운 構造에 適應할 現實的인 理論을 展開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註1) 이러한 理論들은 대개 獨占企業의 存在는 巨額의 投資를 必要로 하는 innovation의 促進에 크게 有效하며, 技術進步에 따라 必然的인 일 뿐 아니라 能率의이며 獨占企業도 長期的으로는 超過利潤獲得을 目標로 하는 新競爭企業의 市場參加라는 潛在的 競爭에 當面하고 있다는 몇가지 論據에 依據하고 있으며 이것은 事實上 先進國의 경우 어느程度의 妥當性을 內包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獨占價格은 價格硬直性을 가진으로써 短期的인 社會經濟的混亂을 排除하는데 寄與하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事實 美國의 鐵鋼價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떤 獨占價格들은 景氣變動, 市場에 있어서의 需要供給의 關係에서 벗어나 어떤 때는 이에 逆行하는 강한 硬直性을 갖고 있다. 더구나 獨占企業의 獨占價格決定은 可能한 限의 利潤을 獲得하기보다 될수록 安定된 價格을 維持하려는 데 두어지고 있다. 高度로 集中化된 獨占企業은 이와 같은 價格政策에 견딜만한 蓄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獨占企業에 있어서 經營技術上 希求되는 것은 보다 많은 利潤의 獲得과 동시에 長期間에 걸쳐 움직이지 않는 安定된 價格이

(註 1) J.A. Schumpeter, J.M. Clark, J. Robinson, E.H. Chamberlin, J. K. Galbraith 등이 이 理論展開에 특히 寄與하고 있다.

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獨占企業의 得失의 論議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獨占企業은 그 生成過程에서 우려나온 特有的 生理와 社會經濟의 繼續된 混亂으로써 獨占이 가질 수 있는 長點보다는 이로써 發生할 缺點만이 뚜렷이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獨占企業은 아직도 商業資本의 性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 長期的으로 安定된 價格을 維持하려는 政策을 내세울 수 있을 만큼 充分한 蓄積을 갖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短期的인 利潤의 極大化에 注力하였으며 設定하는 獨占價格은 A. Smith의 命題대로 購買者가 支拂할 것을 承諾하는 最高價格이었다. 이것은 언제나 生産要素價格의 上昇에 연유하는 原價高를 그대로 獨占力에 의하여 消費者에게 卽刻的으로 轉嫁시켰음을 意味한다. 이와 같이 任意的인 生産在庫調節에 의한 市場競爭의 排除를 通하여 이른바 管理價格, 칼텔價格 또는 團合의인 協調價格을 設定하였으며, 그들의 支配力은 商業資本力에 의하여 流通過程으로 침투함으로써 獨占支配力을 強化하였다. 이러한 獨占價格群의 廣範圍한 存在는 國民經濟上 重大한 問題를 提起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條件下에서는 반드시 獨占的 市場支配의 有利性이라고 생각되는 價格의 安定化의 作用이 따르지 않는 反面에 價格構造는 下方硬直性이나 上方으로는 自由市場競爭이 許容하는 限度까지 無制限으로 開放되어 있다는 重大한 矛盾에 直面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價格體系下에서는 通貨信用政策을 통한 安定政策은 오히려 所得과 雇傭을 減少시키고 經濟成長率을 低下시킬뿐 安定化效果는 그다지 期待할 수 없다. 또한 이와 아울러 經濟成長을 위한 積極的인 開發投資活動도 所得 및 雇傭의 增加에 앞서 物價, 國際收支의 不安定化를 招來하는 構造의 不安定性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最近 2年間의 強力한 物價騰貴와 國際收支의 惡化는 이것을 端的으로 實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이러한 獨占價格形成下에서는 生産費의 低下는 價格引下로써 消費者에게 歸屬되지 않으며 反面 生産費의 上昇은 卽刻的으로 價格引上을 通하여 消費者에게 轉嫁된다. 1957年以

後의 貨幣의 側面에 偏重된 安定政策이 自由競爭市場에서 形成되는 農產物價格의 暴落에 의하여 一時的으로 奏効하였을 뿐이며 物價安定에 別로 寄與하지 못하였음은 看過할 수 없는 事實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條件下에서는 獨占價格이 物價安定에 別로 寄與하지 못할뿐 아니라 이들 獨占企業이 갖는 가장 큰 長點으로서의 innovation의 促進도 크게 期待할 수 없다. 왜냐하면 比較的 安易하게 原價高를 消費者에게 轉嫁시킬 수 있을 경우 그 안에서는 技術革新의 意欲이나 實現은 沮喪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獨占企業의 政策에 牽制를 加할 수 있는 對應勢力으로서의 勞動組合이 企業內部에 存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利潤의 極大化追求는 언제나 低賃金 및 市場支配力의 強化라는 形式으로 나타났다. 事實 이들 獨占企業들은 初期에는 外國施設과 技術의 導入에 따른 部分的 革新에 의한 過渡的 先取獨占市場을 이루었으며 그 後의 市場競爭은 칼텔 形成에 의하여 効率的으로 統制하여왔다.

5. 結 論

지금까지의 獨占價格形成의 바탕과 特徵에 대한 分析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獨占企業은 주로 外國의 援助에 의한 外國의 施設 및 技術의 導入이라는 部分的 革新의 先取特權에 의하여 形成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거의 全部 援助依存型이며 援助, 國際收支의 變動 및 換率의 改正에 極히 敏感하다. 그리하여 이들은 輸出入活動에 깊이 關與하고 있으며 아직도 商業資本으로서의 性格을 強하게 띠고 있다.

(2) 우리나라의 獨占企業은 生産財產業部門보다 消費財產業部門에 많이 存在함으로써 市場競爭圈에서 中小企業과 有機的인 生産補完關係에 있기 보다 市場에서의 競爭者로 登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獨占企業의 外國施設과 技術導入은 언제나 中小企業을 倒産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

(3) 이러한 背景下에서 管理價格群은 極히 下方硬直性이나 上方으로는 自由競爭이 許容하는 限의 價格上昇을 企圖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管理價格의 움직임은 比較的 安定的이나 段階的으로 急激한 上昇을 이루어 餘他物價에 先行하

고 있다.

(4) 少數의 企業들이 寡占狀態下에 있는 產業에서는 比較的 容易하게 칼텔 形成에 의한 價格協定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價格協定은 1957年 緊縮政策의 影響을 되도록 沮止하려는 企圖下에서 비롯되었으며 國內需要量에 비추어 過大한 施設을 갖추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緊縮政策으로 因한 物價下落을 最小限으로 沮止시키는 데 相當한 成果를 거두었다. 이를 위하여 대개 이들 칼텔價格協定에 參與하고 있는 部門들은 生産操短이 一般化 되어 있으며 操業度가 50%以下에 머무는 部門도 相當히 많았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過誤에 의한 過剩投資로 생긴 遊休施設의 減價償却費까지도 消費者에게 轉嫁시키는 結果가 되었다.

(5) 1957年 以後의 緊縮政策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工業製品中の 自由競爭價格과 農產物價格群이었다. 그 중에도 農產物價格이 가장 甚한 影響을 받았으며 이것은 一時的인 物價上昇의 沮止에 寄與하였으나 農家所得의 相對的인 低下를 가져왔다.

(6) 따라서 獨占價格은 暗買者가 承諾하리라고 생각되는 最高價格에서 決定되는 것이 一般的이었으며 結局 原價의 上昇은 대개 卽刻的으로 價格上昇을 通하여 消費者에게 轉嫁되었다.

(7) 이러한 獨占價格을 維持하기 위하여 獨占企業들은 積極的으로 流通過程에 介入하여 都賣商 地方代理店等 販賣系列의 支配體制를 確立하였다.

이와 같은 몇가지 特徵은 우리 나라의 物價政策에 대한 方向을 示唆하는 바 있다. 勿論 一般的인 物價上昇은 資源과 勞動力의 完全雇傭狀態下에서 이루어지는 貨幣的인 現象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구나 代替可能한 生産要素를 發見하기 어렵고 生産部門에 많은 隘路가 內在하기 때문에 供給이 非彈力的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有效需要의 變動은 物價水準에 크게 影響을 줄 것이기 때문에 長期對策으로서 隘路部門의 打開에 의한 供給의 圓滑化와 併行해서 또는 그에 優先해서 效果的인 通貨信用政策이 講究되지 않으면 안된다. 通貨信用面을 통한 適切한 安定政策은 經濟의 自律性을 尊重하는 間接的인 物價政策

으로서 앞으로 계속 堅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緊縮政策의 強行은 物價安定보다 所得, 雇傭의 下落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間接政策만으로 우리나라의 物價政策이 充分히 達成된다고 볼 수는 없다. 市場條件이 根本的으로 超過需要狀態에 있고 主要商品의 供給이 獨占 내지 寡占下에 있어 價格의 下方硬直성이 強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間接的 手段이 實效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直接的인 統制方法의 使用은 資本主義經濟의 가장 중요한 特徵인 價格機構에 대한 干與가 되며 이것은 자칫 하면 資源의 非效率的인 配分使用으로 이끌어갈 憂慮가 있다. 더구나 直接的價格統制는 過剩需要가 除去되지 않는限 統制價格以外에 暗賣價格을 形成하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常識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通貨信用政策만으로는 物價安定의 達成이 不可能하다는 點에서 直接的 統制方法은 多少의 副作用에도 不拘하고 考慮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直接的 價格統制의 範圍는 最小限으로 制限되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物價體系에 있어서 先導價格의 役割을 하는 財貨 및 用役に 두어져야 할 것이다. 米價 및 一部 獨占價格 및 cartel 價格群이 그 對象으로 論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直接的인 統制方法은 通貨信用政策에 의하여 補完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때로는 政府의 流通過程에의 介入까지도 自招하는 結果가 된다. 왜냐하면 制限된 總供給量은 각 需要者의 最小限의 需要를 充足시키게끔 公平히 配分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當該財貨의 暗賣價格의 暴騰, 品貴로 因한 消費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直接的 統制方法은 반드시 統制價格의 設定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政府는 價格의 下方硬直성이 強하고 上方으로는 當時의 市場條件下에서 最高價格으로 先騰하는 傾向이 있는 獨占價格이 合理的인 線으로 定하여지게끔 可能한 모든 影響力을 發揮하지 않으면 안됨을 意味한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專任講師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附屬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